

사훈

밝은 불성의 개발(佛)
바른 생활의 창조(法)
맑은 사회의 실현(僧)

1월호

奉元寺報

발행인 이철호(운봉)
주간 조석연(현성)
편집인 황영상
인쇄인 준빈기획
발행처 한국불교대학교종 봉원사
TEL 392-3007~8
FAX 393-9450
http://www.bongwonsa.or.kr
등록일 1998년 1월 6일 등록번호 라 08352

서기 2020년 1월 1일 수요일(음력 12월7일)

봉원사보

제274호

謹賀新年

경자(庚子)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학 과학 처장 김영천	총무 김민수	·유천포인대학 조현성	부단장 최병수	의원 김향천	·합창단 엄정영	의원 이석천	·봉원사 조영회 김래호	의원 김태호	·보존회 김순자	사무국장 김순복	·관음회 송성심	어장 김구해	총무 이갑숙	·영산재보존회 황무량성	사무국장 이은근	총무 최선덕	·관음회 송진영	교재 김해담	고문 안성자	부주 박연하	고문 송화영	주지 이운봉	·관음회 송성심	회주 심만춘	·관음회 송성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보존도량 전통사찰 봉원사

불기 2564년 경자(庚子)년 봉원사 관음회 송성심월 회장 신년사

신앙생활을 위한 세가지 제안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봉원사 불자님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불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봉원사와 관음회를 비롯한 여러 신행단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불자님들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새해가 되면 가슴속에 무언가 벅차오르는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새로운 각오로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발원을 하며 희망찬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계획을 세우고 발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운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는 속된 생각을 버리고 선행을 닦아 오로지 불도에만 열중하는 정진(精進)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허황된 발원이 되지 않도록 항상 분수에 맞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발원이 허황되면 공염불이 되기 쉽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정직하고 이치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새 해에 처음 세우는 계획이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처음에 바른 마음을 계획했을 때 참다운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다짐하는 맹세가 없으면, 마부 없이 말을 모는 것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고 발원을 행하면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올해 신앙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제자로서 청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타인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수행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이타심으로 자기가 얻은 공덕과 이익을 다른 이에게 베풀어 나쁜만이 아닌 주위의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나와 우리’라는 집단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더 넓은 마음과 올바른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남을 줍시다. 그래야 진정한 내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봉원사의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찰은 스님들만의 수행처가 아닙니다.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공동으로 수행하는 불국토(佛國土)입니다. 우리 봉원사의 행사와 불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봄·가을의 성지 순례에도 적극 참여해서 부처님의 불을 느껴 보시고, 절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민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비와 불심도 느끼시고 각 신행단체에 가입하여 봉사나 나눔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교 교리의 이해와 아울러 정진에 힘을 써 보도록 합시다.

셋째,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 봉원사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靈山齋)를 유일하게 거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종교단체가 있지만 영산재라는 장엄한 불교의식은 오로지 우리 봉원사에서만 봉행되고 있습니다. 영산재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닌 장엄한 실재의 불교의식임을 알고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 모두가 불법(佛法)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는 부처님 앞에서 행하는 최대 최고의 장엄한 불교의식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런 유산을 가진 대가람에 속해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도록 합시다.

올해는 경자년,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쥐가 영리하고 생존력이 뛰어난 것처럼 우리도 영리하게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계획했던 일들이 뜻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 신도님들! 금년 한해의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피안에서 안락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보람 있는 생활을 하시는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재일 철야정진 기도법회 및 삼동산림 회향 안내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서 ‘불생불멸 생사해탈의 무여열반’의 깨달음을 증득하신 날입니다. 금번 봉원사에서는 깨달음의 의미를 돌이키고 의지를 다짐하고자 하는 신도들을 위하여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동참하셔서 이타적 삶과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삼동산림 회향 의식도 봉행 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부처님과 선근인연을 맺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성도재일 : 철야정진
1월 1일(음력 12월 7일) 수요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 삼동산림 : 화엄법회 회향
1월 2일(음력 12월 8일) 목요일 새벽 6시, 오전 10시
- 장 소 : 설법전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스님

삼동산림회향기도 차량 시간표

시간	버스정류장
5시 00분	봉원사 출발
5시 05분	독립문 파출소(지구대) 앞 주차장 앞
5시 10분	서대문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05시 15분	북아현동 가구단지 입구 버스정류장 육교 앞
05시 17분	북아현동 우리은행앞(아현지하철역 2번 출구 앞)
05시 20분	구 아현동 육교 앞, 현 국민은행 앞
05시 23분	이대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05시 25분	구 미라보호호텔 앞
05시 30분	신촌 지하철역 3번 4번 출구 앞
05시 35분	연남동 버스 정류장 앞
05시 40분	세브란스 정문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
05시 45분	봉원사 도착

종무소 02)392-3007 / 합규진 과장 010-3247-5520

“한 해의 업식(業識)을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 기해(己亥)년 중산림 참회 법회 봉행 -



지난 12월 20일(음력 11월 24일) 새벽 5시와 오전 10시에 두 차례의 관음재일 중산림 법회가 여법하게 진행되었다. 삼동산림 중 관음재일을 맞아 봉행된 이날의 법회 관음예문은 범주 진해 스님과 바라지 경재 스님, 전시식은 범주 도안스님과 바라지 범길 스님의 집전으로 거행되었다.

‘관음예문’은 불보살님께 자신의 죄를 참회함으로써 공덕을 이루어, 자신과 남들이 다 함께 정도에 왕생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원을 담은 의례문으로 부처님과 백의관음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불보살님께 귀의하고 찬탄한 후, 10악업(惡業)을 참회하고 무량수국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의 법회는 지난 한해의 업식(業識)을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는 의미로 더욱 뜻이 깊었으며 사부대중이 모두 한뜻이 되어 연비의식을 행하였다. 참회란 기도, 참선, 정진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깊게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됨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마음이다. 참회에는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이 있는데 이참이란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어두워진 마음을 참회하는 것이고, 사참이란 몸으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다.

연비(燃臂)의식은 초의 심지에 불을 붙여 팔 일부의 살을 태움으로써 계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살이 타는 동안 “참회진언(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을 외우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업)들을 뉘우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의식이다. 이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도 바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도정진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육신에 말도 못할 고통이 따른다. 연비의식은 이러한 육신의 고통도 감내할 만큼 불퇴전의 신심을 보이는 것이다.

연비에 얽힌 이야기로는 1004년 송나라 도원이 지은 ‘경덕전등록’에 그 유래가 실려 있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 대사’와 그 제자 ‘혜가 스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다.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수행을 하고 있을 때 ‘신광’이라는 젊은이에게 법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믿음을 보이라고 말했다. 이에 젊은이

는 슬며시 칼을 뽑아 왼쪽 팔을 끊었고(설중단비(雪中斷臂 : 눈 속에서 팔을 잘라 법을 구함), 이를 지켜본 달마 대사는 ‘혜가’라는 법명을 주고 법을 일러 주었다고 전한다.

신라의 혜통(慧通) 스님은 당에서 법을 펴는 선무외(善無畏) 삼장을 찾아가 법을 구했는데 만나 주지 않자 불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서 머리가 익어 터지는 신심을 보여 제자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 이후로 불법에 대한 믿음과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의 표징으로 팔뚝의 일부나 혹은 손가락을 불에 태우는 의식이 공식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법의 진리, 도(道)를 구하기 위해 자기 육신마저도 헌신짝처럼 바칠 수 있는 용맹심과, 그 믿음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의 상징이 바로 연비의식이 가진 속뜻이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연비의식은 법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위법망구(爲法忘軀 : 깨달음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음)의 지극한 신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이다. 팔뚝의 일부분을 태우는 연비는 출가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행하는데, 득도식을 할 때에 참회와 서원을 하면서 초의 심지에 불을 붙여 살갓을 태우는 의식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날의 새벽 예불은 스님들의 발우공양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참가한 신도들은 모두 스님들과 함께 아침 공양을 함으로써 ‘참회법회’와 ‘연비의식’의 참 뜻을 되새기며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참회하고 부처님께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이와 같이 봉원사에서는 삼동산림 중 관음재일을 택해 사부대중과 신도들이 모여 연비의식을 행함으로써, 한해의 업식을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한다는 다짐과 불법(佛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意志)를 세우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 업식(業識) : 과거에 저지른 미혹한 행위와 말과 생각의 과보로 현재에 일으키는 미혹한 마음 작용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상조 서비스 “유성라이프”

- 차별화된 100% 후불제 시스템

- ▶ 애플런스 관내제공
- ▶ 장례1급 지도사 파견 및 도우미 파견
- ▶ 고급오동관 등 최고급 고인용품 제공
- ▶ 남여 상복 등 의전용품 제공
- ▶ 리무진 버스 45인승 서비스(화장장 왕복 제공)
- ▶ 운학원통 유골함 제공
- ▶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이장, 개장 등 알선 서비스

앞으로 좀 더 많은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루 가내에 평온과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 1833-2545

숲속 한방랜드24시 숲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숲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봉원동 51
(시내버스 7024번 종점)
전화 : 02)365-2700~1

한 해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가다듬는 날

- 기해(己亥)년 동지불공 원만 회향 -



구에서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이때에는 음기(陰氣)가 극성한 가운데 양기(陽氣)가 새로 생겨나는 시기로 사실상 새해의 시작으로 간주하여 '작은 설'이라고도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지를 귀한 날로 여기고 있으나 언제부터 그래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예로부터 동짓날엔 붉은 팥죽을 쑤어 귀신을 물리치는 관습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신라시대 선덕여왕이 분황사 예불에 참석했는데, 여왕을 사모하던 지귀라는 청년이 여왕을 만나고자 했으나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 원귀가 되어 서라벌의 사람들을 괴롭혔다. 여왕은 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동짓날 팥죽을 문간에 뿌리자 원귀가 사라져 행패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사찰에서는 동지에 팥죽을 먹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동짓날에 불공 범회를 열어 지난 한 해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가다듬는 날로 자리 잡고 있다.

회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가다듬는 날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동지의 전야(前夜)를 중요시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젊은 스님들이 은사스님이나 스승님을 찾아뵙고 일 년 동안의 가르침에 감사함을 회향하는 뜻에서 인사를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동지 팥죽은 잔병을 없애고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이웃 간에 돌려가며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지금도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재앙이 있을 때 팥죽, 팥밥, 팥떡을 하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동지 무렵이면 관상감(觀象監)에서 왕에게 새해의 달력을 바쳤고, 이를 받은 왕은 관원들에게 달력을 나누어 주었다. 동짓날은 부흥(復興)을 뜻하는데 이날부터 태양이 점점 오래 머물게 되어 낮이 길어지므로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 새 달력을 만들어 가짐으로써 신년 맞이 준비를 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짓날 부적으로 '사(蛇)'자를 써서 벽이나 기둥에 거꾸로 붙이면 악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동짓날 날씨가 온화하면 다음 해에 질병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여겼으며,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 징조(徵兆)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동짓날에는 어려운 백성들이 모든 빚을 청산(清算)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즐기는 풍습도 있었다. 동짓날 새 버선을 신고 이 날부터 길어지는 해 그림자를 밟고 살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장수를 비는 의미에서 며느리들이 시할머니,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집의 기혼녀들에게 버선을 지어 바쳤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예전처럼 다양한 동지 풍속들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팥죽을 쑤어 먹음으로써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일 만큼은 여전히 동지 풍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2월 22일(음력 11월 26일) 일요일, 동지(冬至)를 맞이하여 설법전에서는 봉원사 대중 스님들과 3백여 명의 신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동지불공(冬至佛供)이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동지는 대설(大雪 : 12월 7일)과 소한(小寒 : 1월 6일)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인 12월 22일이나 23일경이다. 24절기 중의 마지막 절기로서 북반

새로운 봄과 희망찬 일년을 위한 간절한 기도

- 경자(庚子)년 입춘불공 봉행 예정 -



다음 달 2월 4일(음력 12월 24일) 화요일에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불공이 봉행될 예정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서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이다. 서양에서는 1월1일을 한해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양력 설날을 한 해의 시작이라 말하는 것은 적당치 않을 것이다. 절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

되는 입춘이야말로 한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의 선조들은 음력 설날을 기점으로 한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날 떡국을 먹으며, 나이에 한살을 더했다.

이날은 여러가지의 민속행사가 행해진다. 그 중 하나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일이다. 이것을 춘축(春祝) 또는 입춘축(立春祝)이라고도 하며, 각 가정에서 대문기둥이나 대들보·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

인다.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한다.'는 의미로,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는 '땅을 쓸면 황금이 생기고, 문을 열면 만복이 온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 입춘첩이다. 그 외에 '국태민안(國泰民安), 가급인족(家給人足)' 등 도 써 붙이는데, 이 모두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희망하고 한 해 동안 길한 운과 경사스러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민속전통과 함께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피(加被) 속에서 새로 맞이하는 해의 재액을 소멸하고 만사형통을 발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입춘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특히 삼재(三災)가 모든 일에 장애를 일으킨다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불공을 올린다.

불교라는 오래된 종교와 더불어 우리 풍습에 맞게 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희망차게 만들어 준다. 입춘은 새로운 봄을 준비하며 한해를 맞이하는 민족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의미있는 명절인 만큼, 삼재를 소멸하고 화를 복으로 다스리고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삼재소멸 신중불공을 봉원사에서 드려봄은 어떨까.



탄생불봉안(誕生佛奉安) 불감낙성식(佛龕落成式) 원만 봉행



그간 아기부처님이 편히 계실 곳을 마련할 것을 고심하던 봉원사에서는 미륵전에 여법하게 탄생불을 정중히 모시게 되었다. 한국의 전형적인 팔각정 형태로 조성된 불감은 각 부분별로 의미를 부여하여 아기부처님을 모심에 있어

서 만전을 기하였다.

다음은 주지 운봉스님의 인사말이다.

“사월초파일 부처날에는 관등(觀燈)을 비롯하여 매우 성대하고 다양한 봉축행사를 거행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른 손으로는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 계신 ‘지천지지상(指天指地像)’ 아기부처님을 목욕시

켜드리는 관불식(灌佛式)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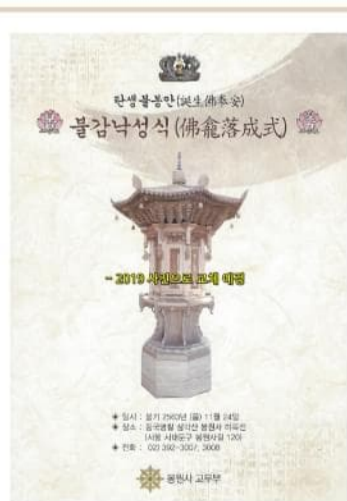
관불식은 이미 성불하신 서가세존(釋迦世尊)을 새삼 목욕시켜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변뇌로 오염된 각자 내면의 부처님을 목욕시켜드리는 행사입니다. 아기 부처님은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따라서 이 날은 부처님 오시는 날임과 동시에 행사에 참석한 불자 모두가 아기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아기부처님께 편히 계실 장소를 마련치 못해 본사 대웅전에 모셔왔었습니다.. 아기부처님은 일 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시는 날에만 뵈고 다른 때에는 불감(佛龕)에 계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이 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공감한 사부대중께서 신심과 성정을 모아 불감을 조성하게 되었고 미륵전(彌勒殿)에 여법(如法)히 안치하여 탄생상을 정중히 봉안해 모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희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는 한국불교 초유의 일로 본사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불사의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참석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회향코자 합니다. 모쪼록 이 좋은 인연으로 불은(佛恩)이 충만하시어 늘 행복하시고 장차 도솔천 내원궁(都率天 內院宮)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거듭 축원 올리겠습니다.”

불기 2563 기해년 음력 11월 24일
봉원사 주지 운봉 합장

아울러 주지 운봉스님은 회주 법사 만춘스님께서 사비로 탄생불봉안을 위해 불감조성과 성대한 낙성식을 봉행하게 되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중산림법회에서 만춘스님은 세계 그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불감낙성식을 여법하게 행하게 되어 기쁘고 이 여법한 행사가 개인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봉원사 50여 스님들의 허락과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주위의 수의 동참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고맙게 느끼며, 특히 후대에 두고 두고 빛을 내게 될 자랑거리가 생겨서 좋다고 하셨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낙성식을 함께 한 사부대중과 신도분들은 한량없는 복을 받으셨다.”고 법사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낙성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행해졌다.

- 삼 귀 의(三 歸 依) - 대중일동
- 반 야 심 경(般若心經) - 교무스님
- 경 과 보 고(經過報告) - 총무스님
- 주 지 인 사(住持人事) - 주지스님
- 연기문낭독(緣起文朗讀) - 관음회장
- 연기문수장(緣起文收藏) - 시주일동
- 탄생상입감(誕生像入龕) - 유나스님
- 불감문엄관(佛龕門掩關) - 주지스님
- 사 흥 서 원(四弘誓願) - 대중일동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건

봉원사는 순수 기부금에 한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사보 후원금 ●
우영순 5만원 (환우스님)
김장원 3만원 (현성스님)
- 기와 시주금 ●
1만원(무기명) / 2만원(무기명)

“음식물 쓰레기 걱정 짝~”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짝수

- 캐나다 벤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 정기 법회 안내 -

☒ 봉원사 화엄법회 ☒

- 법회일 : 매월 음력 1일
- 장 소 : 동절기-설법전
하절기-삼천불전
- 시 간 : 오전 10시
- 문 의 : 392-3007-8



☒ 봉원사 관음법회 ☒

- 법회일 : 매월 음력 24일
- 장 소 : 봉원사 동절기-설법전
하절기-삼천불전
- 시 간 : 오전 10시

☒ 보현 법회 ☒

- 상임법사 : 조환우 스님
- 지도법사 : 조효광 스님
- 법 회 일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
- 문 의 : 392-3013, 2636



☒ 삼 보 회 ☒

- 상임법사 : 박수암 스님
- 지도법사 : 박경재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8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4109



☒ 지 장 회 ☒

- 상임법사 : 석선암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9228



☒ 원 각 회 ☒

- 상임법사 : 마일운 스님
- 지도법사 : 마정교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3일
오전 11시
- 문 의 : 392-5808



☒ 동 진 회 ☒

- 상임법사 : 장운호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초하루 후
첫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8379



☒ 보 현 회 ☒

- 상임법사 : 조현성 스님
- 지도법사 : 조벽담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3일
오전 11시
- 문 의 : 363-0059



☒ 정 각 회 ☒

- 상임법사 : 김태호 스님
- 지도법사 : 김법길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8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5787



☒ 법화정토회 ☒

- 상임법사 : 박처명 스님
- 법회일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 문의 : 393-8027



☒ 칠 선 법 회 ☒

- 상임법사 : 전지암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7일
오전 10시
- 문 의 : 010-4211-5268



☒ 칠 성 법 회 ☒

- 상임법사 : 이석천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5일
오전 11시
- 문 의 : 393-3126



☒ 청 심 회 ☒

- 상임법사 : 김향천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16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7770, 0266



☒ 묘 법 회 ☒

- 상임법사 : 엄혜담 스님
- 법 회 일 : 매월 음력 2일
오전 10시
- 문 의 : 392-8101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정자(亭子) 기행 57



관람정(觀纜亭)

완전한 자연과의 조화 자연과 조화를 이룬 부채꼴형 정자

창덕궁 후원의 한반도를 닮은 연못인 반도지(半島池)에 있는 네 개의 정자 중의 하나로 관람정(觀纜亭)이 있다. 관람지 동쪽 언덕과 못 속에 걸쳐 세워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채꼴의 정자 형태로는 유일하며 연못쪽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경치를 감상하기에 매우 좋다.

1828년에 조선시대의 궁궐을 그린 동궐도에는 이곳에 네모난 못이 두 개가 있고 원형의 못이 하나 있으며 원형 못 속에는 둥근 섬이 있고 섬 속에 나무 한 포기 심어져 있고 동쪽 산자락에 세 칸짜리 기와집이 서 있다. 이 기와집이 관람정인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관람정은 두 개의 네모난 못과 하나의 둥근 못을 합쳐서 현재의 자연형의 관람지(觀纜池)를 만들면서 동쪽 못가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관람지 위로는 동서로 철제 다리가 있었고 1093년 전후의 사진에는 그 모양이 남아 있는데 이때의 관람정은 궁 내부에 비원(祕苑 : 일제 강점기에 유폐된 명칭, 전통적으로 후원(後苑) 또는 내원(內苑), 상림원(上林苑), 금원(禁苑)으로 불리웠다.)이 설치되면서 창덕궁 후원의 보수 정비 사업 시 관람지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정자의 모양은 매우 독특한 형태의 부채꼴 선형(扇形) 기와지붕을 한 굴도리집으로 건물의 일부가 물

위에 떠 있는 형태로, 6개의 원주(圓柱)를 세우고 원주마다 주련(柱聯)을 달았으며 난간을 돌렸다. 처마는 흘처마이고 지붕은 추녀마루 6개가 각각 3개씩 모였으며 그 사이에 용마루를 설치하였다. 크기는 3.8평 정도이며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6개의 기둥 중에서 2개의 기둥은 물속에 4개의 기둥은 언덕에 설치되어 있다. 낙양각을 설치하여 모양을 내었으며 단청을 하였다

목조 건물에서 기둥 위를 가로지르는 수평 부재를 도리라고 하는데 그 위로 서까래를 얹어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전달해 하중을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도리의 모양은 대개가 사각형이지만 둥글게 다듬은 것도 있다. 이 둥글게 만든 것을 굴도리라고 하는데 주로 권위있는 건축물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를 빌어 관람정의 구조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부채꼴 모양의 흘처마 굴도리집'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또한 용도면에서 관람정의 '람(纜)'은 '맞줄 람'자로 배의 맞줄을 바라본다는 뱃놀이의 의미인데 흑자는 연못에서 뱃놀이하며 관람하는 정자가 아니라 여흥을 즐기려는 뜻이라고도 한다. 여하튼 뱃놀이 관람이든 여흥이든 정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 보면 시 한 수 저절로 읊게 하는 풍광 좋은 위치에 자리한 정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관람정의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부채모양의 건물과 더불어 현판이 특이한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현판의 '觀纜亭'(관람정) 글자는 일반적인 현판의 모양인 가로 직사각형의 형태가 아닌 둥근 아취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거기에다 행서를 파초 잎 모양의 판에 과감히 휘날려 쓴 모양이다. 궁궐 건축으로는 파격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한 여름에 관람정에 앉아서 감상하는 경치도 좋지만 사진처럼 한겨울 수북히 눈이 쌓인 정자를 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물론 정자 안에서 관람지와 그 주변 경치를 감상하면 즐거움은 배가 되리라.

(글/사진 선암 석인철)

